

나주시, 고향사랑 답례품 ‘고향의 정’ 대폭 확대

국립숲체원 숙박권·별초 대행권 시, 22종 추가한 30종 준비

? 고향사랑기부제 개인(기부자)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해당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나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제도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2개 품목과 공급업체 17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나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기존 8종에서 총 30종으로 크게 늘었다.

신규 품목은 농산물 12종, 가공식품 5종, 관광·공예품·안전용품·생활 서비스 5종으로 구성됐다. 원재료의 지역성과 품질, 제조과정 관리, 포장 및 라벨링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농산물은 나주로컬푸드 삼겹살·야채 꾸러미,



나주시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2개 품목과 공급업체 17곳을 추가 선정했다. 나주반(왼쪽)과 국립나주숲체원 전경.



(나주시 제공)

꽃차(메리골드), 장류세트, 김치(배추·갯·파), 소·돼지고기, 호박·옥수수·미나리, 국내산 속성 홍어, 참기름·들기름 등으로 한층 더 다채로운 먹거리를 선보인다.

가공식품류로는 지역 대표 음식인 나주곰탕을 비롯해 누룽지, 배추, 육개장, 식혜 등으로 간편 포장 용기에 담아 제공한다.

지역 먹거리와 더불어 특색있고 차별화된 답례품

도 눈길을 끈다. 금성산 천혜의 산림휴양시설인 국립나주숲체원 숙박권, 주택과제 예방을 위한 안전 꾸러미(단독형감지기·분말소화기·가스타이머), 별초대행 서비스권이 답례품 항목에 포함됐다.

전통미와 실용성을 갖춘 나주 대표 복공예품인 나주반과 나주 관광명소가 멋들어지게 새겨진 머그컵(마그넷 포함)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나주시는 신규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

차질 없는 답례품 제공을 위한 고향사랑e을 시스템 운영관리, 제품등록, 배송체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부제 답례품을 크게 늘렸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나주를 알리고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스타기업’ 모집 19일까지...최고 2천만원 지원

화순군이 오는 19일까지 지역을 대표할 ‘2023년 화순군 스타기업’을 모집한다. 스타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기업지원을 받는다. 기업별로 최고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과 홈페이지·경영 관리 소프트웨어(ERP) 구축, 국제 표준(ISO) 인증, 특허 출원·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지원, 제품 포장 제작 등이 있다. 본사와 사업장이 화순군에 있는 창업 3년 이상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제조업 기업은 공장 등록이 됐거나 3개월 안에 등록할 예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금리 인상 등으로 힘든 중소기업에 맞춤형 기술·사업과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수확 한 달 앞두고...강진 쌀귀리 호우 피해 심각

군, 재배면적 70% 쓰러짐 파악 10월 파종분부터 보험 적용 가능

전국 최대 쌀귀리 생산지인 강진에서 지난 주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강진군이 피해 조사에 나섰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4~6일 내린 비로 강진 쌀귀리 재배면적 1000ha의 약 70%에서 도복(쓰러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진군은 오는 16일까지 정밀 조사를 벌여 재난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강진은 전국 최대 쌀귀리 주산지, 300가구가 쌀귀리 농사를 짓고 있다.

지난 4~6일 강진군 신전면에는 323mm의 비가 내리고, 도암면 304mm, 마량면 279mm 등 이 기간 강진에 평균 245mm의 호우가 발생했다.

쌀귀리와 보리밭은 수확을 한 달가량 앞둔 상황이어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강진군 측은 내다봤다.

특히 쌀귀리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작물이 아닌 탓에 강진군은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쌀귀리를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올해 10월 파종하는 쌀귀리 농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강진군은 지난 8일 군청에서 쌀귀리 연구회, 조



강진원(왼쪽) 강진군수가 지난 4~6일 집중 호우로 도복 피해를 본 초동마을 쌀귀리 농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사료연합회와 수확이 어려운 쌀귀리를 조사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진원 강진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은 호우가 집중된 시기부터 지속해서 도복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호중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차장은 “흄뿌리기(산파)보다 줄뿌림(조파) 방식으로 파종한 쌀귀리 농가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의 작물 재배 기술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쌀귀리 특구’ 지

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비 30억원 규모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쌀귀리 가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계약 재배부터 도정·판매까지 일괄 추진하는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쌀귀리 재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올해 10월 파종하는 쌀귀리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지역 인재 양성 '끝이 없다'



김한중(앞줄 왼쪽 네 번째) 장성군수가 장성장학회 이사회를 마치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장학회, 2억3000만원 지급

전년비 24명 늘어난 201명

재단법인 장성장학회는 2023년도 장학금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장학회는 앞서 3월6일부터 17일까지 장학생 모집 기간을 거쳐 277명이 지원한 가운데 심의를 통해 201명을 최종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4명 증가한 것으로 장학금 총액도 전년보다 4300만원 늘어났다.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 일괄 지급 완료됐으며 장학생 명단은 장성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장성장학회 이사장인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의 꿈나무들이 장성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성장학회가 든든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1992년에 설립된 (재)장성장학회는 지금까지 241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24억원을 전달했다. 지난해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72개 사업에 25억원을 지원해 ‘학문은 장성만한 곳이 없다’는 뜻인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의 전통을 굳건히 세웠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사계절 꽃핀다

여름 수국·가을 구절초 등 도시 미관 꾸미고 관광객 유치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이 사계절 꽃 피는 도시를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강진군은 계절별로 지역과 가장 잘 어울리는 꽃을 식재해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관광객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봄에는 유채, 여름과 가을에는 수국과 구절초를 각각 키워 전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강진의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계절별로 꽃이 제때 필 수 있도록 식재 위치, 파종 시기 등의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현재 강진읍사무소 일원과 강진만 생태공원, 다산박물관, 군동면 소방서, 대구면 수동리, 병영면 지로리 등에 유채꽃이 만개했거나 곧 필 예정으로, 이는 모두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미리 파종했던 결과물이다.

여름철 수국축제 준비도 한창이다. 강진군은 본격적인 여름으로 가는 길목인 6월30일부터 3일간 보은산 일원에서 ‘보은산 수국길 축제’를 개최한다.

가을에 만개할 구절초도 미리 파종하고 있다. 호수공원 일원 1만1000㎡(3300평) 부지에 10만본,



강진에 조성된 유채꽃 단지. 포토존이 함께 마련돼 있어 인생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강진군 제공)

삼일탑 인근 15만본, 읍천면 기좌리 산 85~1에 5만본을 식재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관광객 500만명 유치의 일환

으로 다채로운 관광 포인트가 많은 강진에 유채, 수국, 구절초 등 계절별 꽃을 식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창평고 총동문회 장학재단, 신입생 멘토링 후원

창평고등학교(교장 나은찬)가 11일, 12일 양일간 1학년 전체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서울 소재 대학교를 탐방하는 ‘신입생 진로진학 멘토링’을 실시한다.

창평고 ‘신입생 진로진학멘토링’은 1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직접 찾아가 대학교의 공식 탐방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졸업생을 만나 진학에 도움이 되는 학습법 등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창평고 총동문회 장학재단

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신입생 진로진학 멘토링은 졸업생과 학교 재학생이 연결돼 끈끈한 연대감을 키우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창평고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창평고 총동문회 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시행되는 행사로, 소액의 후원금 등을 모아 조성한 기금이 후배 재학생들의 진로진학 목표 설정에 사용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함평군, 상반기 장학생 204명 선발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함평군이 2023년 상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선발을 완료했다.

함평군은 2023년 상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204명 선발을 완료하고 이달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장학생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인재양성추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204명(고등학교생 34, 대학생 170)을 선발했다.

상반기 장학금 지원규모는 5억2000만원이

며,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군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장학금 지급 인원을 30% 가량 늘리고, 예산 또한 2배 이상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외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도 일정 주요조건을 충족하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